레이호칸

레이호칸(靈寶館)은 닌나지 절이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수집해온 불상, 회화, 경전, 서간 등의 귀중한 작품들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시설로서 니오몬에서 본당으로 이어지는 참배길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9 세기 창립 당시에 만들어진 아미타삼존상과 공작명왕을 그린 11 세기의 불화(佛畵)가 특히 귀중하며 모두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닌나지 절이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은 1867 년까지 황족의 일원이 맡고 있었던 닌나지 주지 앞으로 천황이 보낸, 손수 쓴 문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통해서는 특히 일본 문화가 꽃피었던 헤이안 시대(794~1185 년)의 교토에 살았던 귀족의 신앙 생활에 닌나지 절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토광을 연상시키는 이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은 건축가 가타오카 야스시(1876~1946 년)의 설계에 따라 1927 년에 완성한 것으로서, 일본 등록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레이호칸은 매년 4 월 1 일과 10 월 1 일부터 각각 약 50 일 동안에 걸쳐 '메이호텐'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